

민주, 사법리스크 극복·지지층 확대 '어떻게 할까' 고심

민생경제·정치개혁...사법리스크 해소 노력
 사법 리스크 확산에 반사이익 등 효과 못봐
 야권 탄압에 단일대오 유지는 긍정적 평가
 北무인기 대응실패·경제위기 심화...尹 악재
 '개헌, 위기 대응' 공감 시도...여 부정적 반응
 차별화 행보 강화...여론전 등 국면전환 노력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지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극복과 지지층을 확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정치 개혁 추진을 통해 사법리스크 해소를 시도하고 민생 경제에 주력하며 지지층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사법리스크 확산에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외교안보 무능, 경제 위기 등에도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중론이다. 비교적 소수지만, 향후 수사 전개 상황에 따른 분위기 반전을 말하는 당 내 인사도

존재한다.

반면 민주당 내에선 지난 10일 검찰 출석으로 한 국면이 넘어갔단 주장도 나온다. 사법 리스크를 검찰 리스크로 프레임 전환도 시도하고 있다.

이 대표 출석 당일 연대 행동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지만, 정치 탄압에 대응한다는 당 기조 측면에선 굳건한 단일대오를 보였다는 데 의미를 두는 분위기도 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출석 전 입장 표명, 조사 전후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잘 대처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 전 정부 수사·감사

관련 대응과는 별도로 정부 기조와 실책을 비판하고 민생, 정책 정당을 적극 부각하며 대외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예산안 등 협상을 통해 전액 삭감 민생 예산 일부를 살려 내는 등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방탄정당' 이미지 탈피, 지지 기반 확대까지 이르지 못했던 관측이 적지 않다.

반전 계기가 있었지만 긍정 작용하지 못하고 있던 평가도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야당 존재감을 선명하게 드러내지는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북한 무인기, 경제위기 등 문제 지적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런 사안들이 곧바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아울러 나경원 전 의원 해임 등 여러 측 갈등이 고조된 시점에 민주당 쪽에선 사법 리스크가 주목받으면서 반사이익 기대가 줄었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한 강경 공세 기조는 유지하는 동시에 '개헌', '민생경제 위기 대응' 등을 앞세워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제 관련 논의가 접화된 가운데, 이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권한 분산 등 개헌론을 통한 정치개혁 의제가 공



론화될 지도 국면전환의 관건이다.

내년 총선 관련 차별화 행보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의사 결정 과정 국민 비율 확대' 언급 등이 눈길을 끈다.

이 대표가 직접 전국을 순회하면서 당 저변 확대에 나선 상황이기도 하다. 최근 이뤄

지는 '경정 투어'는 지역 지지 기반 확대 성격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아가 우호 여론 형성에도 적극적인 모양새다. 최근 이 대표는 다수의 소통 계기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여론전 독려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최이슬기자

이재명, 당 기본사회위원장 맡기로...“책임있게 풀어갈 것”

대표 정책 브랜드인 만큼 책임지고 이끌겠다는 취지
 부위원장직에는 당내 중진 거론...구체적 인선 아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사회' 구상을 뒷받침할 당 기본사회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만큼 직접 위원회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

이 관계자는 "(기본사회는) 이 대표가 직접 단진 의제고, 또 단기간의 의제가 아니라 앞으로 탄탄하게 꾸려가야 될 의제"라며 "(이 대표가) 이걸 풀어가려면 당대표가 (위원장)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 논의 과정에서 '이건 대표가 맡아야 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니 대표도 '오케이' 하셨다"며 "(지도부는) 다들 공감했다"고도 부연했다.

이 대표와 함께 위원회를 이끌 부위원장직에는 당내 중진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위원회의 구체적인 인선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득 주거 금융 등 전 분야에 걸친 '기본사회'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하며 이를 위해 당 내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재환기자

박지원, '개딸' 향해 "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향해 총을 쏘냐"며 자제 요청 부탁

"이낙연이 현재 이재명 공격하나...총 앞으로 쏘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인 소위 '개딸'을 향해 "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 총을 쏘냐"며 자제를 요청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민주당은 총단결해 야당 탄압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옆으로 총을 쏘지 말고 앞으로 쏘라고 했다"며 "이 대표도 저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했다.

또 "이 전 대표가 현재 이 대표를 공격하냐"며 "과거 경선 과정은 잊으시라.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당이 절단날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지나간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총을 앞으로 쏘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우리 민주당은 이 대표와 함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자"며 "개딸들 사랑하고 부탁한다. 그래야 이 대표가 이긴다"고 거듭 당부했다.

오유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